

■ 그림 여행



주방 하녀와 채소, 과일의 정물화 (Cookmaid with Still Life of Vegetables and Fruit) 나다니엘 베이컨 경 (Sir Nathaniel Bacon 1585 - 1627) (캔버스에 유채 151 cm x 247.5 cm 런던 테이트 미술관)

풍성한 먹거리를 묘사한 정물화는 농업기술 발전이 가져다준 식생활의 풍요를 과시하기 위해 16-17 세기 네델란드에서 유행했던 '시장' 그림의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 귀족 나다니엘 베이컨 경이 남긴 이 그림도 그러한 '시장' 장르 그림들의 맥락을 지니고 있다. 그가 17세기 초에 네델란드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그런 류의 그림들을 보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베이컨 경은 원예와 경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재배했다고 한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17세기 당시 영국에서 재배 생산하던 것들이고 특히 그림 속 하녀가 들고 있는 멜론은 베이컨 경 자신이 직접 재배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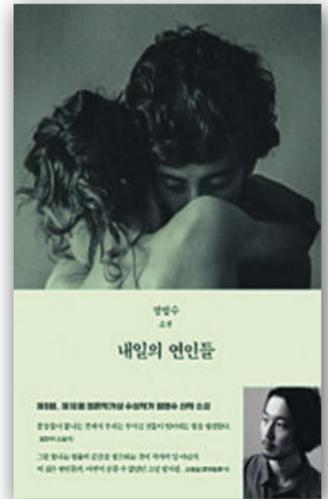
어느 늦가을에 테이트 미술관에서 이 그림에 주목했던 것은 하녀가 들고 있는 멜론이 아니라 화면 오른쪽 하단에 그려진 탐스러운 호박 때문이었다. 멜론, 앵두, 포도, 오이, 당근, 양배추, 콩, 토마토 등 계절이 맞지 않는 각종 야채와 과일 속에 넉넉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호박을

보며 미소 지었던 기억이 난다. 미국 호박처럼 주황색은 아니지만 정성스러운 재배 후에 이어진 수확의 기쁨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에세이집 '치유하는 미술'에서 이 그림은 넘쳐나는 소비만능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운 수확을 얻기 위해 요구되었던 노동의 집대성을 보여주는 은유의 이미지라고 말했다. 현대 사회의 문제는 귀한 것을 쉽고 값싸게 얻으려는 욕망에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식탁에 이러한 음식물이 올라 오기까지 매 단계의 노력을 명예롭게 기억하자고 역설했다.

이 많은 농작물 가운데 주방 하녀가 앉아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결국은 그녀가이 먹거리들을 요리해야 할 것이고, 그녀의 노동을 거쳐야 모두 테이블 위의 요리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 소박하고 느긋한 그림 속에 인간의 욕망과 노동, 농업의 발전과 농산물 거래의 암시까지 다 들어 있으니 참으로 풍성하고 알찬 그림이 아닐 수 없다. 《김동백》

■ 신간



2017년 출간한 첫 소설집 <애호가들>을 통해 실존의 허무, 삶의 (무)의미를 워트 있게 보여준 소설가 정영수가 삼 년 만에 두번째 소설집 <내일의 연인들>을 선보인다. (중략) 2018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하고 문학과지성사의 '이 계절의 소설' (2017년 겨울)에 선정된 '더 인간적인 딸' 과 2018년 가을 '이 계절의 소설'에 선정, 2019 올해의 문제소설, 2019 현대문학상 수상후보자, 2019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작품 '우리들', 2019년 여름 '이 계절의 소설'에 선정, 2020 올해의 문제소설로 꼽힌 표제작 '내일의 연인들' 등이 수록돼 있다. (출판사 서평 중에서)

■ 장영수 지음 | 문학동네 펴냄 | 236쪽



Licensed · Bonded · Insured

ONE STOP SERVICE

HOME REMODELING

Paint, Kitchen & Bath 리모델링 전문업체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케비넷
전기
플러밍

714.420.5989 / 714.404.2766 One Stop Service.brucelee@gmail.com